

1 제17801호 2판
2007년 7월 7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송부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기부 2200-616 광고부 2200-521
결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사회2부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3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사회4부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식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극무대 다시 조선으로

40%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주몽'을 비롯, '대조영' '연개소문' 등 최근 고구려사에 집중했던 TV 드라마가 다시 조선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사극 연출의 대명사로 꼽히는 이병훈, 김재형 PD가 '이산 정조'와 '왕과 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산 정조'의 지존'으로 승승장구하던 김재형 PD의 경우 2003년 '왕의 여자'를 내놓았다

이병훈 PD의 '대조영'에 눌러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어 올해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왕과 나'는 오는 8월 20일부터 SBS에서 방영되기로 잠정 결정된 데 반해 MBC에서 작품을 준비중인 이병훈 PD의 '이산 정조'는 방영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맞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재형 PD와 '여인천하'의 유동운 작가가 다시 손잡은 '왕과 나'는 실존인물인 궁중 환관 김처선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바탕으로 그가 왕실에서 보필했던 문종부터 연산군까지 여섯명의 임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사회와 정변을 목격한 김처선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항선이 연기했던 인물.

드라마에서는 '산둥' '포도밭 그 사나이'와 뮤지컬 '헤드윅' 등을 통해 팬층을 넓혀가고 있는 오만석이 김처선 역을 맡아서 열연하며 '여인천하' 이후 오랜만에 사극으로 복귀한 전민호도 인선대비 역으로 출연한다. 그밖에 전광렬, 구혜선, 이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병훈 PD는 드라마 '이산-정조'로 9~10월께 복귀한다. 드라마 제목인 이산은 정조의 본명이다. 총 60부작으로 선보일 '이산-정조'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과정과 조선왕조의 르네상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주인공 정조와 문묘세자를 낳았던 후궁 성소연, 어린 시절 정조의 친구로 후일 호위부사가 된 박대수의 삼각관계도 주요 모티프다. 주인공 정조 역에는 '다모'의 이서진, 영조 역으로는 이순재가 출연한다.

이병훈 PD의 '이산 정조' 이외에도 정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채널 CGV는 정조 암살 미스터리를 다룬 대형 사극 '8일'(연출 박종원)을 방송한다. 정조의 8일간의 화상행차를 배경으로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립을 묘사한 오세영 작가의 소설 '원행'을 원작

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정조 역으로는 김상중이 출연하며 박정철이 정약용 역으로 캐스팅됐다.

8부작 미니시리즈인 '한성별곡-교'은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사회 변혁을 꿈꾸던 세 남녀의 일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9일부터 KBS를 통해 방영되는 '한성별곡-교'는 서열출신 주인공을 내세워 사회의 개혁문제와 권력 압력 등을 다루게 된다. 이진희·김하은 등 신인배우가 출연하며 '음란서생'에서 왕으로 출연했던 안내상이 정조 역을 맡는다.

'대조영'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송되는 KBS 대하 드라마 '세종대왕'의 주인공으로는 김성경이 캐스팅됐다. 13세 때부터 한글 창제 등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통해 그가 이룬 업적과 인간적 고뇌를 80부작으로 그린 '세종대왕'은 타이틀 톱을 누가 맡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던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인화>



<오만석>

<김상중>

'이산 정조' '왕과 나' 잇단 방영

케이블 채널 CGV도 제작 나서

이병훈 PD는 드라마 '이산-정조'로 9~10월께 복귀한다. 드라마 제목인 이산은 정조의 본명이다. 총 60부작으로 선보일 '이산-정조'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과정과 조선왕조의 르네상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주인공 정조와 문묘세자를 낳았던 후궁 성소연, 어린 시절 정조의 친구로 후일 호위부사가 된 박대수의 삼각관계도 주요 모티프다. 주인공 정조 역에는 '다모'의 이서진, 영조 역으로는 이순재가 출연한다.

이병훈 PD의 '이산 정조' 이외에도 정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채널 CGV는 정조 암살 미스터리를 다룬 대형 사극 '8일'(연출 박종원)을 방송한다. 정조의 8일간의 화상행차를 배경으로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립을 묘사한 오세영 작가의 소설 '원행'을 원작

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정조 역으로는 김상중이 출연하며 박정철이 정약용 역으로 캐스팅됐다.

8부작 미니시리즈인 '한성별곡-교'은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사회 변혁을 꿈꾸던 세 남녀의 일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9일부터 KBS를 통해 방영되는 '한성별곡-교'는 서열출신 주인공을 내세워 사회의 개혁문제와 권력 압력 등을 다루게 된다. 이진희·김하은 등 신인배우가 출연하며 '음란서생'에서 왕으로 출연했던 안내상이 정조 역을 맡는다.

'대조영'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송되는 KBS 대하 드라마 '세종대왕'의 주인공으로는 김성경이 캐스팅됐다. 13세 때부터 한글 창제 등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통해 그가 이룬 업적과 인간적 고뇌를 80부작으로 그린 '세종대왕'은 타이틀 톱을 누가 맡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던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수 제이, 제2의 전성시대

지난달 하순 가수 제이(J)는 예상치 못한 희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년 만에 발표한 신곡 '눈물로'가 발매 1주일 만에 인터넷 음악사이트 멜론의 주간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 제이가 가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소속사 문제를 마무리하느라 공백이 길어졌죠. 그러다가 어머니와 의논한 끝에 아예 가수 활동을 그만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CCM(현대기독교음악) 음반 활동을 하면서 지내기로 결심했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현 소속사

(스핀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면서 재기의 의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심혈을 기울여 선곡한 '눈물로'와 '시간은...'다 당채 하니가'를 디지털 싱글 형태로 발표했고, 9월말 정규 6집도 낼 예정이다.

"작곡가께서 이 곡을 처음 들려줬을 때 마음 속으로 '이건 아니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소속사에서서는 오히려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 '녹음한 후 모두들 안 맞다고 말한다면 포기하자'고 합의한 후 작업을 시작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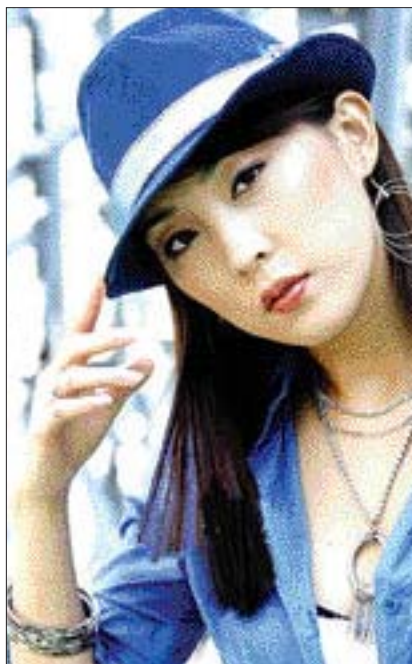
특히 이 곡은 이성과 듀엣으로 불러 눈길을 끈다.

우여곡절 끝 재기 성공 가요차트 7년만에 정상

제이는 6집에 고모인 가수 정훈희와 듀엣으로 부른 곡을 담은 계획이다. 영화 '단적비연수'의 최진실 테마곡도 다시 불러 신다.

한편 그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남자친구의 존재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해외 동포 출신으로 사귀는 지 1년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는 오빠가 부인과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동행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후 사귀게 됐다"면서 "후배인 애즈윈 멤버들이 '두 사람이 어울린다'며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movies
인기영화 14부작 10년째
Happy Time
영화가야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따곤 뒤편-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에메 1544-0800

1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 4.4.4. (18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택시4	(12세)
7관	디센트	(18세)
8관	택시4	(12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따곤 뒤편-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4.4.4.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씨노아블	(18세)	
6관	슈렉3	(연세) /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월드시네마 영화시네마 *에메-www.joycbs.com/1588-7941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뒷편)
www.joycbs.com/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07점) 걸리리 상영중
*최근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엔탈 배급
(1번 or 2번) → 1번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아린이전용관 열세살 수아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디센트	(18세)	
6관	슈렉3	(연세) / 황진이	(15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택시4	(12세)	
9관	검은집	(18세)	
10관	트랜스포머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임슬롯 최인민을 위한 전용주차면 인터넷 에메 문의
*전화예약 가능 1588-9101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즐거움이 가득 *www.m0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디센트	(18세)
2관	택시4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슈렉3	(연세)
8관	오션스 13	(12세)
9관	검은집	(18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임슬롯 최인민을 위한 전용주차면 인터넷 에메 문의
*전화예약 가능 1588-9101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디센트	(18세)	
5관	오션스13	(12세)	
6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혼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문의 227-1960